

중고령 저임금근로 현황과 특성*

신 현 구**

I. 머리말

고령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국가들이 시행하는 정책들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령연금 급여 개시 연령을 더 늦추고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소득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이유로는 생활비 등의 수입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만족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생계 유지를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령층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일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5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0.9%로 미국 60.3%, 호주 60.6%, 독일 57.7%, 영국 56.7% 등보다 높았고, 일본(65.2%)과 스웨덴(70.6%) 정도만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었다(OECD, 2011). 특히 65~69세 연령층 고용률은 40%를 웃돌고 있어 OECD 평균 18.5%의 두 배가 넘는 등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기준).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계로 인하여 일하는 고령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참

* 이 글은 향후 발간 예정인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실태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2014)의 제2장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hin@kli.re.kr).

여하는 많은 중고령자들이 저임금근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에 대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저학력, 여성, 고령층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윤진호, 2007; 석상훈, 2008; 이병희, 2008; 정성미, 2011a).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양극화가 커지면서 근로빈곤 또는 저임금 또는 저소득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많은 중고령자들이 취약한 일자리에 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는 약 25%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자로 좁혀 보면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약 41%였고, 또한 41%의 저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약 24%가 중위임금의 1/2 미만인 초저임금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OECD Employment Outlook*(2013)에서 발표한 저임금근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25.1%)는 미국(25.1%)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이스라엘(22.1%), 아일랜드(21.1%), 폴란드(20.7%), 영국(20.6%), 캐나다(20.3%) 등이 높은 국가들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저임금 수준이 미국과 더불어 가장 높음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저임금근로에 대한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저임금 일자리 발생은 주로 여성, 청년층, 이주민에게 해당되는 일이다(Grimshaw, 2011). 고령 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이 높은 현실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들 가운데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저임금근로 발생 비중을 보면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정성미, 2011b).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에서는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낮고 중장년층에서 높은 반면, 미국은 4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 저임금 비중이 낮다. 구체적으로 2005년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26.8%, 미국은 25.7%였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각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은 미국이 각각 37.2%, 19.2%, 17.2%, 16.4%, 28.1%이고, 우리나라는 26.0%, 16.8%, 24.5%, 34.6%, 65.8%였다. 미국은 50대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가장 낮은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저임금 비중도 같이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도 60대 이상 연령층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약 28%로 50대 연령층(16%)에 비해 크게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여 50대 연령층의 저임금 비중도 크게 높지만 60대 연령층에서는 더욱 높아졌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고령층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저임금근로의 전반적인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 제II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

한 저임금근로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실태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중고령 세부 연령계층 및 일자리 특성에 따른 저임금 비중을 살펴보고, 중고령 저임금 일자리의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Ⅱ. 저임금근로의 정의

저임금근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기간 높은 실업률 문제에 고민하던 서구 국가들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임금근로의 증가에 직면해 있다. 저임금근로가 확산되고 근로 자체가 빈곤을 벗어나는 데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저임금근로자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임금근로는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들에 국한된 문제에서 이제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예외 없이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도 1990년대부터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근로가 확산되며 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특히 미국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로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Bernhardt, 2011).

하지만 저임금근로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OECD는 전일제 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저임금근로로 규정한다. 이를 따라 오스트리아는 전일제 근로자 중위임금의 2/3 이하 임금을 저임금근로로 규정한다. 하지만 미국은 4인 가족 빈곤선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영국은 최저임금 미만을 저임금 일자리로 규정한다(윤진호, 2007). 반면 Eurostat 통계에서는 중위임금의 60%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저임금근로 비중을 산출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위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독일은 평균임금의 75% 미만을, 노르웨이는 제조업 평균 시간당임금의 85% 미만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임금근로의 규정 방식은 빈곤에 대한 정의처럼 크게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통해 나누어 볼 수 있다.¹⁾ 절대적 기준에 의한 저임금근로의 규정은 임금의 절대적 기준을 정하고 그 이하 혹은 그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앞서 말한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 영국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이 임금 미만인 근로자를 저

1) 이하에서 검토한 저임금근로 규정에 대한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윤진호(2007)를 참조하였다.

임금근로자로 규정한다. 절대적 기준에 의한 저임금근로 정의는 이들의 생활수준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특히 빈곤 상태와도 쉽게 연계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저임금 기준의 설정이 자의적이고 물가 변화에 따라 실질 구매력이 민감하게 변화하며 분배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윤진호, 2007).

상대적 기준으로 저임금근로를 규정하는 방식은 임금 분포의 특정 하위층에 속하는 일정한 이들을 저임금근로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임금 분포의 하위 30%를 저임금근로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하위 계층은 무조건 저임금으로 규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위임금의 일정 비율을 저임금 기준으로 정하고 그 이하 혹은 그 미만을 저임금 일자리로 규정하는 방식도 있다. 이 방식은 중위임금 상승에 따라 저임금 기준선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상대적이지만 동시에 저임금 계층의 임금 분포가 바뀌면 저임금 고용 비율도 변화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기준의 문제를 보완한다(윤진호, 2007).²⁾ 이러한 대표적인 방식이 앞서 말한 OECD가 활용하는 저임금근로 규정 방식이다. 즉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저임금 일자리로 규정한다.

물론 중위임금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몇 가지 이슈가 존재한다. 먼저, 기준이 되는 임금 산정을 시간당 임금으로 할 것이냐, 주당 임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월 또는 연간 임금으로 할 것이냐이다. 만약 월 임금이나 연간 임금으로 저임금고용을 측정하는 경우, 그 일자리가 임금이 낮아서인지 아니면 노동시간이 적어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윤진호, 2007; Grimshaw, 2011).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가 시간당 임금은 많아도 짧은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월 임금은 낮은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처우가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이병희, 2008).

다음으로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일제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고 저임금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로 나타나는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하여 OECD는 전일제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이슈들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단 OECD를 따라 저임금근로를 전일제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의 중위값보다 2/3 미만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규정한다.³⁾ 하지

2) Grimshaw(2011)는 상대적 기준에 의한 저임금 정의를 중위 또는 평균 임금의 특정값 이하(혹은 미만)로 규정하는 것을 상대임금 기준으로, 그리고 임금 분포의 하위 특정 비중 이하(혹은 미만)로 규정하는 것을 하위 비중(a fixed proportion)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3) 더불어 중위임금의 50% 미만을 초저임금 일자리로 규정한다.

만 중고령 연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처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 일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저임금 일자리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고령자의 경우 자발적인 이유에서든 아니든 노동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Ⅲ.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현황과 추이

이하에서는 3개월 평균 임금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여 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저임금근로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저임금근로 발생 비중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주로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다음 장에서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에 따라 저임금근로 비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은 2002~2012년 각 8월 기준으로 저임금근로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2002년 저임금근로 비중을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 10여 년이 지난 2012년에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24.8%로 약 1.6%p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이 기간 저임금근로 비중은 증가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저임금 근로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07년에 가장 높은 27.4%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2년 24.8%를 보여준다.⁴⁾

지난 10여 년간의 저임금근로 비중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저임금근로 비중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이 아닌 2007년에 가장 높은 저임금근로 비중을 나타냈다는 점이 특이하다. 어쨌든 2007년까지 늘어났던 저임금근로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2002년 수준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연령대를 15~49세, 50세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5~49세 연령층의 저임금 비중은 2002~2012년 동안 약 2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

4) 한편 중위임금의 50% 미만 임금을 받는 초저임금 비중은 2002년 9.8%에서 2003년에 12.6%로 올라선 후 큰 변동 없이 대략 12%대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13.8%, 13.7%로 올라갔다가 2011년에 10.9%로 떨어지는 약간의 변동을 보였다.

〈표 1〉 2002~2012년 저임금근로 비중

(단위 : %)

	연도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초저임금		
전체	2002. 8.	23.2	9.8	49.0	27.7
	2003. 8.	24.1	12.6	47.6	28.2
	2004. 8.	26.3	12.2	46.0	27.7
	2005. 8.	26.6	12.0	44.3	29.1
	2006. 8.	25.8	13.8	47.8	26.4
	2007. 8.	27.4	12.6	44.4	28.2
	2008. 8.	26.8	13.7	42.3	31.0
	2009. 8.	26.2	12.4	46.2	27.6
	2010. 8.	26.3	12.8	45.6	28.1
	2011. 8.	22.6	10.9	47.7	29.7
2012. 8.	24.8	12.7	44.9	30.4	
15~49세	2002. 8.	20.1	7.5	51.1	28.7
	2003. 8.	20.7	9.8	49.8	29.5
	2004. 8.	22.8	9.4	48.3	28.9
	2005. 8.	22.8	9.1	46.8	30.4
	2006. 8.	21.6	10.5	50.8	27.6
	2007. 8.	22.8	9.3	47.6	29.6
	2008. 8.	21.9	10.0	45.3	32.9
	2009. 8.	21.1	8.9	49.9	29.0
	2010. 8.	20.8	8.9	49.2	30.0
	2011. 8.	17.2	7.1	50.6	32.2
2012. 8.	19.1	8.7	48.1	32.8	
50세 이상	2002. 8.	39.9	22.1	37.8	22.3
	2003. 8.	41.7	26.8	36.5	21.8
	2004. 8.	43.3	25.9	34.7	22.0
	2005. 8.	43.9	25.3	33.3	22.8
	2006. 8.	43.8	28.2	34.9	21.3
	2007. 8.	45.2	25.4	32.1	22.7
	2008. 8.	45.2	27.3	30.9	23.8
	2009. 8.	43.4	24.0	33.8	22.8
	2010. 8.	43.4	25.0	34.3	22.3
	2011. 8.	38.5	22.0	39.1	22.5
2012. 8.	40.5	23.7	36.0	23.5	

주 : 초저임금근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1/2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 저임금근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 고임금근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3/2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 중간임금근로는 저임금과 고임금 사이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로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근로 비중은 2002년 20.1%에서 2007년에는 22.8%로 약간 늘어났다. 이미 2004년, 2005년에도 22.8% 비중을 보인 바 있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이 저임금근로의 증가로 이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2011년과 2012년 저임금근로 비중은 10%대로 떨어졌다.

이번에는 우리의 주 관심사인 50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자를 살펴보자.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약 40%가 넘는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 비중은 2002년 39.9%에서 2007년과 2008년에 45.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시기의 저임금근로 증가가 주로 중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9년부터 조금씩 감소하여 2012년에는 40.5%로 떨어져 2002년 수준에 가깝게 떨어졌다.⁵⁾ 즉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저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실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50~69세 연령층을 5세 간격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⁶⁾ <표 2>를 통하여 5세 간격으로 보면 50대 후반부터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50~54세 연령계층의 저임금 비중은 25~30%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에 비하여 약 2~5%p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이 연령층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 26.3%에서 2007년 31.8%까지 최고치로 올랐다가 2012년에 26.9%로 낮아졌다.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2008년에 약 4.9%p까지 차이가 났었지만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발생했던 가장 큰 차이였고 2012년에는 2.1%p로 줄어들었다.

50~54세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아도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5~59세부터 저임금근로 비중이 크게 올라간다. 지난 10여 년 동안 55~59세 연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 35.9%에서 2008년 42.1%까지 올랐다가 2012년 32.4%로 낮아졌다. 전체 임금근로자와의 저임금 비중 차이는 2002년에는 12.7%p 정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2008년 15.3%p까지 더 벌어졌다가 2012년에는 7.6%p까지 줄어들었다.

60대 연령층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더 커진다. 60~64세 연령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비중은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즉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연령대 임금근로자 2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는 그 비중이 60%까지 올라가기도 하였으며, 2010년부터 낮아져 2012년에 약 54% 수준을 보인다.

5)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가운데 초저임금 근로 비중은 2002년 22.1%에서 2006년 28.2%까지 늘어났으며, 2009년 이후 22~25% 수준을 보이고 있다.
6) 50대와 60대 임금근로자 저임금근로 비중을 대략 살펴보면, 지난 10여 년간 50대 임금근로자는 저임금 비중이 30~35% 수준을 보였고, 60대 임금근로자는 59~65% 수준을 보였다. 즉 50대 임금근로자는 10명 가운데 3~3.5명이, 60대 임금근로자는 6~6.5명이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60대 후반, 즉 65~69세 연령층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더 많아져 지난 10여 년 동안 65.5~78.1%의 비중을 보였다. 2002년에는 65.5%였던 저임금근로 비중이 2008년에는 78%까지 올랐다가 2012년 68.7%로 낮아졌으나 2002년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5명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4명이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으며, 적어도 3명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적어도 2명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5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3개 연령층의 2012년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에 비하여 조금 낮아지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65~69세 연령층은 2012년에도 2002년에 비하여 비중이 많아졌다. 이 연령층은 초저임금 비중도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10명 가운데 7명은 저임금 일자리에, 그리고 7명의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5명은 초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5세 간격으로 살펴본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지난 10여 년간 저임금근로 비중 추이를 요약하면, 50대 초반 연령층은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저임금근로 비중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50대 후반 연령층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60대 초반 연령층은 2명 가운데 1명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고, 60대 후반 연령층은 2명 가운데 1명은 초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저임금근로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논의의 간결함을 위하여 2002년, 2007년, 2012년 등 3개 연도

〈표 2〉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세부 연령계층별 저임금근로 비중

(단위 : %)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초저임금	저임금	초저임금	저임금	초저임금	저임금	초저임금	저임금
2002. 8.	10.8	26.3	19.7	35.9	32.0	56.1	44.6	65.5
2003. 8.	14.9	28.4	23.6	37.9	36.3	56.7	56.6	71.6
2004. 8.	13.9	29.4	21.2	38.9	37.3	58.4	53.1	73.7
2005. 8.	13.9	30.1	20.3	41.3	37.3	58.9	48.0	67.9
2006. 8.	16.4	30.2	24.8	41.1	41.3	58.4	52.2	68.8
2007. 8.	14.1	31.8	20.2	41.5	36.4	60.1	53.3	71.8
2008. 8.	15.9	31.7	22.0	42.1	37.0	57.3	58.1	78.1
2009. 8.	13.0	29.3	18.0	36.7	33.6	57.1	46.6	73.4
2010. 8.	13.1	29.9	19.8	38.8	32.2	54.6	53.2	74.1
2011. 8.	11.3	25.5	15.2	31.2	28.0	48.0	47.7	67.9
2012. 8.	12.6	26.9	16.5	32.4	32.1	53.9	47.8	68.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의 8월 시점에서의 저임금근로 비중만을 비교한다. 다음 <표 3>에는 가구주와의 관계, 학력에 따른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을 남녀로 나누어 나타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근로 비중이 2배 이상 더 많다.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 24.2%에서 2007년 27.9%까지 올라갔다가 2012년에 22.3%로 감소하였다. 반면 여성은 2002년 62.5%, 2007년 67.9%, 2012년 56.2%로 비록 2002년에 비하여 2012년에 저임금 비중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임금근로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중고령 저임금근로는 여성 중고령자에게 해당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가구주 여부에 따라 저임금근로 비중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남녀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인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0%대인 반면, 가구주의 배우자이거나 기타 가구원인 경우에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가구주임에도 저임금근로 비중이 여전히 60%대로 나타났고, 다른 가구원과도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중고령 여성 가구주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저임금근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가구원의 부양을 책임진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많은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는 낮은 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자에게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많았으나 고학력자의 경우도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 중고령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은 34~43%, 여성은 67~77%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정도 저임금근로 비중이 많았다. 고졸 학력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남성 20~25%, 여성 44~54%였다. 대졸 이상자는 남성

<표 3> 중고령(50~69세) 임금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저임금근로 비중

(단위 : %)

		남 성			여 성		
		2002. 8.	2007. 8.	2012. 8.	2002. 8.	2007. 8.	2012. 8.
전 체		24.2	27.9	22.3	62.5	67.9	56.2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22.8	27.1	21.8	64.7	69.1	56.2
	배우자	44.8	49.2	50.3	59.8	66.1	53.9
	기타	42.8	42.8	26.5	65.8	70.7	79.1
학력	중졸 이하	34.2	43.2	34.7	67.4	77.4	66.9
	고졸	20.4	25.4	23.1	44.4	54.4	48.1
	대졸 이상	6.6	7.6	8.8	11.2	17.5	2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경우 7% 내외, 여성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경우 11~23% 수준을 보인다.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저임금 비중이 높다. 그런데 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우 남녀 모두 2002년, 2007년, 2012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여성 대졸 이상 중고령자의 증가 정도가 눈에 띈다.

앞서 살펴본 바로는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7년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2002년 수준보다 조금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고졸 학력자는 남녀 모두 2007년에 비하여 2012년에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대졸 이상 학력자는 2007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고학력자의 경우 저임금근로 비중 증가가 2002년 11.2%, 2007년 17.5%, 2012년 23.1%로, 남성에 비하여 그 증가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고학력에서 저임금근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에 따른 저임금 비중의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낮은 처우와 함께 불안정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에 따른 저임금근로 비중을 살펴보자. <표 4>에 이를 나타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소규모 사업장,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는 상용직에서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낮은 반면, 임시직, 일용직에서는 높았다. 하지만 같은 상용직이라도 남녀간 격차가 크게 났는데, 중고령 남성 상용직 근로자 중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은 10~13% 수

<표 4> 중고령(50~69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특성별 저임금근로 비중

(단위 : %)

		남 성			여 성		
		2002. 8	2007. 8	2012. 8	2002. 8	2007. 8	2012. 8
종사상 지위	상용직	10.6	13.0	13.3	35.1	45.4	35.5
	임시직	40.0	47.4	40.0	62.9	70.6	65.2
	일용직	35.3	45.4	35.8	73.3	80.1	73.7
정규직 여부	정규직		14.4	11.8		63.4	50.5
	비정규직		45.9	39.4		71.3	61.2
사업장 규모	1~4인	36.1	44.6	41.6	71.6	76.1	71.7
	5~9인	29.8	37.5	28.8	58.2	78.1	61.7
	10~29인	28.8	30.2	20.4	64.1	68.0	53.1
	30~99인	23.0	19.8	16.1	48.9	47.5	36.6
	100~299인	10.9	16.6	13.7	64.0	38.5	33.8
	300인 이상	4.7	3.7	3.4	28.5	35.3	19.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준이었지만, 중고령 여성 상용직에서는 35~45%까지 올라가서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10명 가운데 6~7명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10명 가운데 7~8명이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나서 임시·일용직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에게서 저임금 일자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았는데, 여성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 비중이 2007년 63.4%, 2012년 50.5%로, 남성 비정규직보다도 더 높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이 높았다. 1~4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남성은 36~45%, 여성은 71~76%가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만을 놓고 볼 때 남성 중고령 임금근로자들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저임금근로 비중이 10%대에 머물렀지만,

〈표 5〉 중고령(50~69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산업별 저임금근로 비중

(단위 : %)

	남 성		여 성	
	2007. 8.	2012. 8.	2007. 8.	2012. 8.
A 농업, 임업 및 어업	45.1	34.4	94.6	96.7
B 광업	0.0	9.8	0.0	22.4
C 제조업	9.4	8.2	64.4	44.9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3	2.1	14.0	0.0
E 하수·폐기물,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3.4	13.3	61.1	0.0
F 건설업	31.8	21.0	70.8	38.1
G 도매 및 소매업	33.7	27.5	65.0	58.7
H 운수업	29.2	27.1	51.2	38.5
I 숙박 및 음식점업	44.4	45.0	78.2	71.6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5	1.8	21.5	13.6
K 금융 및 보험업	3.1	5.4	14.1	24.7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4.2	53.7	54.8	58.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1	2.8	44.3	30.1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4.7	55.2	84.0	71.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5	14.8	70.4	52.0
P 교육 서비스업	4.9	6.6	33.2	25.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9	29.4	61.3	48.6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4	19.8	96.3	82.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8	30.2	77.4	63.9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 생산	100.0	66.3	64.0	67.1
U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18.5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여성 중고령 임금근로자들은 300인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약 20% 가까이가 저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산업에 따른 저임금근로 비중을 살펴보면(표 5 참조),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농림어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 생산 등의 산업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들에서는 중고령 남성뿐만 아니라 중고령 여성에게도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다. 또한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들은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도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은 직업을 살펴보면(표 6 참조), 남성은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았다. 여성은 이와 더불어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 종사자 등에서도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았다.

〈표 6〉 중고령(50~69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직업별 저임금근로 비중

(단위 : %)

	남 성		여 성	
	2007. 8.	2012. 8.	2007. 8.	2012. 8.
1 관리자	0.0	0.0	0.0	0.0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4	8.3	17.1	18.4
3 사무 종사자	6.1	5.6	38.3	25.1
4 서비스 종사자	16.2	14.7	71.9	62.2
5 판매 종사자	19.2	20.7	40.2	46.2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51.1	31.0	96.6	77.9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1.3	14.1	69.6	50.5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5	16.6	48.5	32.7
9 단순노무 종사자	61.4	57.1	78.9	6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IV. 중고령 저임금 일자리의 특성

이번 장에서는 중고령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자리 특성—기업복지 적용, 근속기간 및 전일제,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노동조합 관련 특성, 교육훈련 경험 등을 중심으로—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기업복지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적용되는 비중이 지난 10여 년간 많이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표 7>을 보자. 여기에는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기업복지 적용 현황을 나타냈다. 먼저 남성 중고령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퇴직금 지급을 적용받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23%, 2007년 31%, 2012년 44%로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받는 비율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었는데 2002년 20%에서 2012년 38%로 늘어났다. 시간외 수당이나 유급휴일을 부여받는 비율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나 절대적인 수준은 낮았다. 시간외 수당이 적용되는 비율은 11% 내외에 그쳤으며, 유급휴일을 부여받는 경우는 2012년 24%에 그쳤다.

한편 중고령 여성 저임금근로자는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기업복지 혜택을 받는 비중이 더 낮았다. 퇴직금 지급이 적용되는 일자리는 2002년 10%, 2007년 18%, 2012년 29% 등으로 점차 늘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상여금을 지급받는 비중도 퇴직금 적용 비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는데, 2007년 16%, 2012년 29% 등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는 일자리 비중도 2012년 11% 내외로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급휴일을 부여받은 경우는 2007년 11%, 2012년 18%로 남성 중고령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표 7>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적용 현황

(단위 : %)

	남 성			여 성		
	2002. 8	2007. 8	2012. 8	2002. 8	2007. 8	2012. 8
퇴직금	22.9	30.8	44.2	10.4	18.0	29.3
상여금	20.2	23.4	37.8	8.5	16.2	29.3
시간외 수당	8.1	11.9	11.4	8.5	9.5	11.5
유급휴일		16.7	24.0		11.0	17.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중고령 저임금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중고령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약 55% 정도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1~3년 미만은 남녀 모두 20% 초중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저임금 일자리면서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남성은 4~8%, 여성은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령 저임금 일자리 가운데 전일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은 2002년 94%, 2012년 90%였고, 여성은 2002년 91%에서 2012년에는 76%로 크게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여성에게서 저임금 일자리의 시간제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저임금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특히 여성의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비중의 증가가 더 눈에 띈다. 2002년에는 전일제 비중이 91%였으나 2007년에는 84%로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76%로 낮아져서 저임금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일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9>를 보면 중고령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는 남성은 절반이 채 안 되었고 여성은 이보다도 낮은 30%대에 그쳤다. 하지만 2007년에 비하여 2012년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은 크게 늘어났고, 특히 여성 중고령 임금근로자에게서 더 크게 늘어났다.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한 상황을 살펴보면,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앞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고령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고령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은 84%, 여성은 93%가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분포 및 전일제 현황

(단위 : %)

		남 성			여 성		
		2002. 8	2007. 8	2012. 8	2002. 8	2007. 8	2012. 8
근속기간	1년 미만	55.2	56.4	53.6	54.8	57.5	49.8
	1~3년 미만	23.1	23.6	21.5	23.8	22.0	26.9
	3~년 미만	9.5	7.9	7.6	9.2	9.1	9.9
	5~10년 미만	7.0	8.2	9.8	7.9	8.0	7.7
	10년 이상	5.2	4.0	7.5	4.2	3.4	5.8
전일제 비중		94.4	93.6	89.0	91.4	84.3	75.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표 9〉 중고령 저임금근로자의 기타 특성

(단위 : %)

		남 성		여 성	
		2007. 8	2012. 8	2007. 8	2012. 8
근로계약서 작성		41.2	49.6	20.5	34.4
노동조합 가입여부	노동조합이 없음	88.6	83.5	93.8	92.9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4.2	8.1	4.2	5.9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1.4	1.5	0.7	0.5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5.8	7.0	1.3	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V. 맺음말

이상으로 우리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중고령 저임금 근로 실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2002년부터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3개월 평균 임금 정보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저임금 비중은 2002년 약 23%에서 세계 경제위기를 전후한 2007~2008년에는 약 27%까지 늘어났다가 2012년 약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 비중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저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고령 임금근로자에게서 저임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지난 10여 년 동안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저임금 비중은 40%를 넘어선다. 2007~2008년에는 45%를 넘었다가 2012년 40.5%로 낮아졌다.

50~69세 연령층을 5세 간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50~54세 연령계층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5~30%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저임금근로 비중과 비교하여 볼 때 약 2~5%p 정도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5~59세 연령계층부터는 크게 달라진다. 55~59세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002년 36%에서 2008년 42%까지 늘어났다가 2012년 32%로 낮아졌다. 즉 10명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3~4명이 저임금 근로자로 일한다는 것이다. 60~64세 임금근로자들은 저임금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즉 이 연령대 임금근로자 2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2007년에는 60%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나, 2012년 약 54% 수준이다. 65~69세 연령층에서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더 많아져서 10명 가운데 약 7명이 저임금으로 일한다.

중고령 저임금근로는 특히 여성에게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고령 저임금 비중은 2002년에 비하여 2012년에는 많이 감소한 양상을 보이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면 가구주인 경우 저임금 비중은 낮지만 여성은 가구주임에도 여전히 높다. 학력별로 보아도 여성은 남성 중졸 이하, 고졸 학력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저임금 비중을 보인다. 여성 중고령 대졸 임금근로자도 남성 대졸자에 비하여 저임금 비중이 크게 높았다. 한편 남녀 모두 대졸 이상자들에게서 저임금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저임금 문제가 비단 저학력자에게 국한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임시·일용직에서 저임금 비중이 높았다. 중고령 여성은 상용직인 경우에도 3명 가운데 1명이 저임금근로에 해당하였고,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령 남성 비정규직에 비해서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령 저임금근로자가 일하는 일자리들은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였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도 절반 정도가 1년 미만이었다.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받는 비율도 남성은 약 40% 내외, 여성은 30% 수준이었으며, 시간외 수당을 적용받는 비율은 남녀 모두 11%, 유급휴일을 적용받는 비율은 남성 24%, 여성 18% 정도에 그쳐서 임금뿐만 아니라 기업 복지의 적용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임금 일자리 가운데 전일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저임금 여성근로자 가운데 전일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에 91%에서 2012년 76%로 낮아졌으며, 남성도 2002년 94%에서 2012년 89%로 낮아져서 점차 저임금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중고령 저임금근로는 상당 부분 여성들에게 더욱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저임금근로로 일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낮은 처우와 높은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 외에 생계 유지를 위한 다른 선택을 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가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를 설명해 준다. 또한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가급적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게 만드는 노동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처우로 인한 빈곤이나 생활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낮은 처우의 일자리에만 몰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이들의 숙련 미활용, 빈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석상훈(2008), 「저임금 근로의 동태적 분석: 상태의존성 검증」, 『산업경제연구』 21(2), pp.691~709.
- 윤진호(2007), 『한국의 저임금 고용: 그 결정요인과 정책과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이병희(2008),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정성미(2011a), 「저임금 고용의 실태 분석」, 『노동리뷰』 2011년 7월호(통권 제76호), 한국노동연구원, pp.55-65.
- _____ (2011b), 「미국과 비교한 저임금근로자 비중」, 『노동리뷰』 2011년 10월호(통권 제79호), 한국노동연구원, pp.70~91.
- Bernhardt, A.(2011), 「미국의 경제위기와 저임금 고용」,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4~15.
- Grimshaw, D.(2011), “What Do We Know About Low Wage Work and Low Wage Workers?: Analysing the Definitions, Patterns, Causes and Consequenc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ILO Working Papers 464858,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